

제주 제2공항 운명 차기 정부로...

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검증 용역 검토”
 용역 기간 7개월 소요... 내년 대선 후 결과 나와
 보완 불가능 결론 내려지면 공항 건설사업 무산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개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제2공항 최종 판단의 몫을 다음 정권에 넘길 경우 찬반으로 나뉜 도민사회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용역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보완해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쥐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다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절차를 재개하고, 반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0일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환경부에 ‘본안’을 제출한 뒤 두차례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차례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류를 되돌려보내는 반려 결정을 했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팽공이 (별종위기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습곡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이후 ▷항공 소음 분야

▷법정보호종 분야 ▷조류 충돌분야 ▷습곡 분야 등 외부 전문가 8~9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반려 사유를 분석하는 한편, 평가서를 다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자문 결과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문가 자문 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구 용역을 통해 검증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나뉜 전문가 의견 중 용역을 통해 검증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라며 “단 용역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이 실시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용역 공고와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나선다해도 물리적으로 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쯤에나 나올 수 있다. 차기 대선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2공항 판단 시기가 늦춰지면 찬반 단체의 반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2공항 찬성단체는 조속한 재개를, 반대단체는 조속한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을 545만7000㎡ 일대에 사업비 5조1229억원을 들여 연간 199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역세대의 가을노래 시나브로 가을이 깊어간다. 바람에는 선선함이 묻어오고 산과 들녘에도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하다. 23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을 찾은 탐방객들이 역새꽃 사이를 걸으며 제주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민기자

여행업 등 15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제주도내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0일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에 대한 지원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일을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

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다혜기자

제주형 재난지원금 77% '가계소비' 지역생산 유발효과 1333억... 취업자 1677명 증가

4차에 걸쳐 도민들에게 지급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70% 이상이 가계소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지급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지급배경, 지급개요 및 지급 결과를 정리하고 지급효과와 지급 실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연구원은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같은 기간 카드 이용액을 비교 분석해 지역 소비, 생산, 고용 등에 끼친 파급효과를 살폈다. 3·4차는 지급대상을 선별해 위기 분야를 긴급구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지역소비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지 않았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차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급됐다.

분석 결과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생산 1333억원, 부가가치 705억원이 유발됐으며 지역 내 취업자 수가 1677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지급액의 77.2%인 1085억원이 도내 가계소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산 유발액은 도내 가계소비 지출액 1085억원의 약 1.23배이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65.0%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이후 4회에 걸쳐 총 140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제1차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 원에서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을, 제2차는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광역시매센터 × 한라일보
 치매예방학습지 **뇌똑똑**
200회차 기념 이벤트
 (2017. 09. 20. ~ 현재까지)

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금)
 대상 : 한라일보 구독자 (제주도민에 한함)
 당첨 : 정답자 중 선착순 100명 (농협상품권 1만원권)
 발표 : 2021. 10. 5.(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2021.10.4(월) 이 대체공휴일인 관계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 이벤트 참여방법

1. 한라일보에 게재된 '뇌똑똑 200회차' 문제를 풀다.
2. 경품수령을 위해 문제 아래 제시된 <개인정보보안>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재한다.
3. '뇌똑똑' 정답과 <개인정보보안>이 보이도록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다. (JPG 등 사진파일용 이용해 문제출어를 했을 경우 문제, 정답, 개인정보보안이 보이게 캡처해주세요)
4. 촬영한 사진을 jeju@mid.or.kr로 문자 전송한다. (문자 전화번호로 인해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811
 23일 17시 기준

명품클럽 메이커
hopeman.kr
 Hopeman & Maruyama

제주대리점 모집!! (제주시, 서귀포시)

국내 유일 독점 공급업체 (주)호프만 제주시 노형로 265 T. 064-711-9958, 010-4501-0126